KIA 윤도현·최지민·강병우 눈길 끈 루키들

윤도현

최지민

강병우

삼성과 연습경기 2-6 패배 … 신인 선수들은 맹활약
최지민 4타자·강병우 5타자 처리 …윤도현은 '안타'

KIA 타이거즈의 '루키'들이 첫 원정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며 박수를 받았다.

KIA는 3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연습경기를 진행했다. 경기는 2-6 패배로 끝났지만 신인 선수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눈길을 끌었다.

마운드에서는 '좌완 듀오' 최지민과 강병우가 깔끔한 피칭을 선보였다.

이날 선발로 나온 이민우가 2회 몸에 맞는 볼을 시작으로 5연속 안타로 4실점을 했고, 두 번째 투수 유승철은 삼성 신인 이재현에게 투런포를 맞으면서 1-6.

5회말 최지민이 마운드에 올랐다. 김현준을 상대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던진 최지민은 2볼 2스트라이크에서 유격수 땅볼로 원아웃을 만들었다.

공민규와의 승부에서는 연달아 헛스윙을 유도했다. 이어 공이 하나 빠졌지만 4구째 다시 헛스윙을 유도하면서 두 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았다.

최지민은 김민수와의 승부에서도 헛스윙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만들었다. 이어 3개의 공이 스트라이크존을 벗어났지만, 파울로 풀카운트를 만든 뒤 헛스윙 삼진으로 3개의 아웃카운트를 채웠다.

투구수가 14개에 불과했던 만큼 KIA는 공수 교대 없이 최지민이 4번째 타자를 상대하도록 했다.

앞선 두 타석에서 내야 안타와 우중간 3루타를 기록한 김성윤과의 승부. 최지민이 넓은 스트라이크존을 활용해 바깥쪽 꽉 찬 스트라이크를 만들었다. 2구는 한가운데 변화구 그리고 3구째 2루수 땅볼로 4번째 아웃카운트를 만들었다.

또 다른 좌완 루키 강병우는 7회 마운드에 올랐다. 첫 타자 김현준에게 초구 높은 볼을 던졌지만 1볼 1스트라이크에서 유격수 땅볼을 잡아냈다. 공민규와의 승부에서는 공하나로 3루수 땅볼을 만들었고, 김재성은 2구째 2루수 땅볼로 처리했다.

강병우가 6개의 공으로 쓰리아웃을 채우자 KIA는 이닝을 마무리하지 않고 두 명의 타자를 더 상대하도록 했다. 윤정빈과 풀카운트 승부 끝에 헛스윙 삼진을 잡은 강병우는 안주형은 초구에 유격수 땅볼로 돌려세웠다.

8회초에는 타석에 눈길이 쏠렸다.

앞선 7회말 수비에서 3루 땅볼을 처리했던 윤도현이 2사 1루에서 첫 타석에 섰다.

윤도현은 초구부터 방망이를 휘둘렀다. 윤도현은 몸쪽으로 낮게 떨어지는 변화구를 걷어내 좌전안타를 만들면서 선배들의 환호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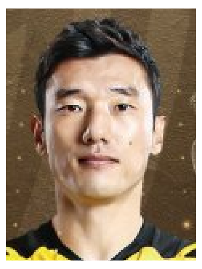
'선발 후보'들의 아쉬운 피칭에도 신인들의 씩씩한 활약과 함께 김종국 감독이 주문하는 공격적인 주루가 눈에 띄었다. 7회초 2사에서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한 김호령이 도루에 성공했고, 이우성과 김규성은 각각 8회와 9회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로 추가 진루에 성공하면서 상대 수비진을 괴롭혔다.

KIA의 새 외국인 선수 소크라테스는 이날 첫 연습경기에 나섰다.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출장한 소크라테스는 세 타석에서 들어서 안타 없이 볼넷 하나를 골라냈다. 첫 타석에서 2루 땅볼을 기록한 소크라테스는 두 번째 타석에서는볼넷으로 출루했다. 세 번째 타석에서는 우익수 플라이를 기록한 뒤 김호령과 교체됐다.

한편 삼성을 상대로 첫 원정경기를 치른 KIA는 4일 휴식 뒤 5·6일 기장으로 건너가 KT 위즈와 2연전을 갖고 실전점검을 이어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드래곤즈 '레전드' 최효진 6일 은퇴식



K리그 통산 416경기에 출전한 전남드래곤즈의 '레전드' 최효진(사진)의 은퇴식이 6일 치러진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공로상을 수여한다.

전남이 6일 오후 4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2 2022 3라운드 충남아산과의 경기에서 최효진의 은퇴식을 진행한다.

2021시즌 플레잉 코치를 선언한 최효진은 FA컵 우승트로피와 함께 선수 생활 마지막을 장식했다. 올해 초 개인 SNS를 통해 은퇴를 발표한 그는 현재 전남 코치로 활약하고 있다.

최효진은 2005년 인천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해 포항, 서울, 상주상무, 전남 등을 거치며 K리그 통산 416경기 출전이라는 위업을 이뤘다. 23골 30도움도 기록했다.

또 17년간 K리그에서 활약하면서 리그 우승 3회(2007 포항, 2010·2012 서울), FA컵 우승 2회(2008 포항, 2021 전남), AFC챔피언스리그 우승 1회(2009 포항), K리그 리그컵 우승 1회(2009 포항) 등 총 7차례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최효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연속 K리그 베스트11을 수상하는 등 K리그를 대표하는 우측 풀백으로 활약했다.

플레잉코치로 뛴 지난 시즌을 제외하고는 데뷔 첫해부터 2020년까지 16년 연속 리그 두 자릿수 출전 기록을 남기는 등 '꾸준함'의 상징이었다.

전남은 은퇴식을 통해 7시즌을 함께 한 최효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할 예정이다. 연맹도 최효진이 지난 17년간 K리그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 공로상을 수여한다.

한편 전남은 이날 경기에서 연패 탈출에 도전한다. 2월 19일 안양 원정으로 시즌을 연 전남은 개막전에서 0-1 패배를 기록한 뒤 지난 26일 '신생팀' 김포FC와의 홈 개막전에서도 0-2로 지면서 2연패를 기록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일(현지시간) 독일 보훔의 보노비아 루르슈타디온에서 열린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8강 SC프라이부르크 대 VFL보훔 프라이부르크의 경기에서 정우영(오른쪽)이 보훔의 아르멜 벨라 코찹과 볼을 경합하고 있다. 정우영은 72분을 소화하며 프라이부르크가 4강에 진출하는 데 기여했다. /연합뉴스

타이거 우즈 대회 한 번 안 뛰고 PGA 상금 800만불 챙겼다

타이거 우즈(미국)가 대회에 한번도 뛰지 않고도 미국프로골프(PGA)투어가 주는 상금 800만 달러를 챙겼다.

골프채널 등은 3일(한국시간) "PGA투어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선수 영향력 지수(PIP) 산정 결과 우즈가 1위를 차지해 보너스 상금 800만 달러의 주인이 됐다"고 보도했다.

PIP 순위는 선수의 성적과 상관없이 얼마나 팬들의 관심을 끌었느냐로 정한다.

선수의 인기는 구글 검색 빈도, 미디어 노출 빈도와 노출 정도, 선수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와 호감도 조사 등을 토대로 측정한다.

사실상 선수 인기도나 다름없다. PIP 순위 10위에 드는 선수에게는 4000만 달러를 보너스로 나눠준다. 우즈는 2020년 마스터스에 출전한 이후 한번도 PGA투어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지만, 어떤 선수보다 더 많은 관심과 인기를 끌었다는 뜻이다.

대회 출전이 없었던 우즈를 제치고 초대 PIP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던 필 미컬슨(미국)은 2위로 밀렸다.

/연합뉴스

정우영의 프라이부르크, 독일 포칼컵 4강 진출

정우영(23)이 선발 출전한 프라이부르크가 연장 승부 끝에 짜릿한 승리로 독일축구협회 컵대회(DFB-포칼) 4강 진출을 이뤘다.

프라이부르크는 3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독일 보훔의 보노비아 루르슈타디온에서 열린 VfL 보훔과의 2021-2022 DFB 포칼 8강전 원정경기에서 연장 후반 15분 롤런드 셜러이의 극적인 결승골로 2-1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프라이부르크는 우니온 베를린, 함부르크 SV, 라이프치히와 함께 대회 4강 무대에 오르게 됐다.

함부르크는 2부 분데스리가 팀으로는 유일하게 4강에 합류했다.

4강 대진 추첨은 오는 7일 진행될 예정이다.

정우영은 이날 보훔을 맞아 4-2-3-1 포메이션의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다.

공격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한 채 72분을 뛴 정우영은 1-1로 맞서던 후반 27분 루카스 횔러와 교체돼 먼저 경기를 마쳤다.

전반을 득점 없이 마무리한 프라이부르크는 후반 6분 닐스 페테젠의 선제골로 균형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후반 19분 제바스티안 폴터에게 헤딩 동점골을 허용해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결국 승부는 연장으로 이어졌고, 연장전에서도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아 승부차기까지 치르는 듯했다.

하지만 경기 종료 직전 보훔 수비수의 백패스 실수를 놓치지 않고 공을 가로챈 셜러이가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선 상황에서 차분하게 차넣어 승부를 갈랐다.

/연합뉴스

리버풀, 잉글랜드 FA컵 8강

리버풀이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8강에 진출했다. 리버풀은 3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2021-2022 FA컵 5라운드(16강전)에서 같은 프리미어리그(EPL) 팀인 노리치시티를 2-1로 따돌렸다.

이로써 리버풀은 준결승까지 올랐던 2014-2015시즌 이후 7년 만에 FA컵 8강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말 리그컵(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 첼시와 11명의 승부차기 끝에 이겨 10년 만에 우승한 리버풀은 이번 시즌 다른 대회에서도 모두 우승 도전 가능성이 열려 있다.

EPL에서 2위(승점 60)에 자리했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선 8강 진출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여기에 FA컵에서도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연합뉴스